

2024.09.20.(금) 증권사리포트

LG전자

아시아 NDR 후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출처] NH투자증권 이규하 애널리스트

중장기 신사업 및 밸류업에 쏠린 관심

과거 가전과 TV, 전장 등 기존 사업부에 대한 획일화된 투자자의 관심도가 중장기 신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 및 목표로 다변화되었음을 체감. 또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밸류업 방식에 대해 질의. 중장기 성장성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등 고려해 Top-Pick 관점 유지

중장기 사업에서는 가전 구독 사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음. 많은 투자자들이 가전 렌탈과 가전 구독을 같은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비용이 추가되고 마진이 20%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듣고 대부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도 기대되는 포인트

밸류업과 관련해서 동사는 하반기 새로운 주주 환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여러가지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인도법인 IPO 관련된 질문들도 많았는데 현재 인도 시장의 성장성과 긍정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커멘트

신사업 관심 확대, 우려 요인은 제한적

WebOS와 칠러를 포함한 신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음. WebOS는 기존 TV 시장에서의 성장 뿐 아니라 자동차 시장까지 확대해 중장기 30~40% 성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 공조부문(HVAC)도 기존 B2B 시스템에어컨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용 칠러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 언급

반면 여전히 부진한 수요와 전기차 판매 둔화, 계열사 관련 리스크 등을 우려하는 투자자도 존재. 하지만 최근 가전 수요는 이머징 마켓에서 개선되고 있고, 전장에서는 고부가 인포테인먼트 제품 확대로 마진이 상향된 점을 부각. 또한 계열사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84,228	89,786	95,090	99,006
증감률	0.9	6.6	5.9	4.1
영업이익	3,549	4,516	5,064	5,407
증감률	-0.1	27.3	12.1	6.8
영업이익률	4.2	5.0	5.3	5.5
(지배지분)순이익	713	2,021	2,394	2,722
EPS	4,267	12,263	14,542	16,542
증감률	-41.0	187.4	18.6	13.8
PER	23.9	8.4	7.0	6.2
PBR	0.9	0.9	0.8	0.7
EV/EBITDA	3.8	3.1	2.7	2.3
ROE	3.7	9.9	10.9	11.4
부채비율	156.4	147.0	139.7	131.5
순차입금	4,763	2,784	821	-2,292

단위: 십억원, %, 원, 배





SK

경쟁력 있는 CDMO, 여기에도 있다

[출처] DS투자증권 김수현 애널리스트

북미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SK팜테코 사업 기회 창출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 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SK팜테코는 제제 대상이 된 우시바이오와 CGT CDMO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생산, Cell Gene Therapy CDMO) 등에서 겹치는 사업 영역이 있어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이미 올해 4,5월부터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SK팜테코를 포함 비 중국계 CDMO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팜테코는 CGT 계열뿐만 아니라 올리고 핵산, 항체약물 접합체 (ADC) 등을 25년 시범 생산, 26년부터 본격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 비만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LP-1 등 펩타이드 분야에서도 CDMO 진출을 검토 중이다. 최근 미국 cGMP (제조 인증 시설)에서 6개월만에 스위스 페링 제약으로부터 방광암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 중이다.

CGT CMO 분야의 Inorganic 성장과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가시화

21년 CGT 전문 CMO인 프랑스의 Yposkesi 인수 (70%지분)와 23년 미국 CGT CMO인 CBM사를 인수하면서 유럽과 미국에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한 CGT CMO 시장에 진입했다. 2분기를 기점으로 펀더멘털도 개선세에 진입했다. 합성 CDMO는 SK바이오텍 아일랜드의 당뇨 등의 핵심 제품 공급 확대로 매출이 회복세에 있으며 CGT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영업손실도 축소되고 있다. 하반기 CGT CDMO 고객사 주문 재개와 생물 보안법 통과에 따른 25년 매출 증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배구조 개편과 CDMO사업 비교군 주가 상승은 NAV할인을 축소 계기

그룹의 리밸런싱을 통한 재무 안정성 확보 작업이 시작됐고 보유 중인 투자 유가증권 (플러그 파워 등) 중 일부 매각을 통한 현금화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최근 CDMO산업 Peer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증가

하고 있어 동사가 보유 중인 팜테코 (86.5%지분)의 지분가치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팜테코 가치 5조원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기존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97,204	132,079	131,238	132,116	133,437
영업이익	4,860	8,161	5,056	5,940	4,478
영업이익률(%)	5.0	6.2	3.9	4.5	3.4
세전이익	5,982	5,900	-678	3,923	3,033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966	1,099	-777	1,177	731
EPS(원)	26,448	14,779	-10,651	21,405	13,266
증감률(%)	903.8	-44.1	적전	흑전	-38.0
ROE(%)	10.2	5.1	-3.7	5.6	3.3
PER(배)	9.5	12.8	-16.7	6.9	11.1
PBR(배)	0.9	0.7	0.6	0.5	0.5
EV/EBITDA(배)	4.8	4.1	5.2	4.2	4.0

자료: SK,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하나금융

환율 모멘텀 발생 예상. 자사주 추가 매입 가능성도 검증

[출처] [하나증권 최정욱 애널리스트](#)

3분기 순익 1.1조원으로 컨센서스 상회 전망. 원화 강세에 따른 모멘텀 발생도 예상

하나금융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2,000원을 유지. 3분기 추정 순이익은 약 1.1조원으로 QoQ 2.9%, YoY 11.2% 증가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1) 3분기 중 원화대출이 -0.3% 역성장하고, NIM은 4bp 하락하면서 순이자이익은 전분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 금리와 환율 하락에 힘입은 유가증권관련익과 외화환산익 발생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큰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3) 여기에 강화된 PF 사업성 평가 기준 결과적용으로 비은행 부문에서 약 600억원 이상의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있지만 경상 대손비용이 2천억원 후반에 그치면서 표면 대손비용도 3,500억원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한편 9월 미국 FOMC 회의에서 빅컷(금리 50bp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선물이 크게 하락하는 등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원화 강세는 외화환산익 발생 뿐만 아니라 NIM과 자본비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업종내 대표적인 환율민감주인 하나금융에 상당한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

아쉬웠던 CET 1 비율 하락과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무산. 3분기 실시 가능성은?

하나금융은 상반기 중 그룹 CET 1 비율이 43bp나 하락했고, 결국 13%를 하회한 12.79%에 그치면서 기다렸던 추가 자사주 발표 기대가 무산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장의 실망감이 컸음. 결국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실시 여부는 자본비율 개선 폭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데 3분기 자본비율이 큰폭 상승이 예상되면서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추정. 1) 경쟁사들이 3분기 중 약 3~4%대의 대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하나은행은 대출이 오히려 소폭 역성장하면서 원화자산 RWA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고, 2)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한데다 추가 하락 가능성 또한 높아지면서 외화자산 RWA도 큰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3) 게다가 금리 하락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와 양호한 실적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요인 등까지 감안할 경우 3분기 그룹 CET 1 비율은 최소 50~60bp 이상 상승하면서 13.3~13.4% 이상으로 13%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된다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가로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올해 KB금융이 7,200억원, 신한지주가 약 6,500~7,0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 진행이 예상된다. 점에서 하나금융도 연간 최소 4,0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소각 추진을 기대(상반기 기 발표 규모 3,0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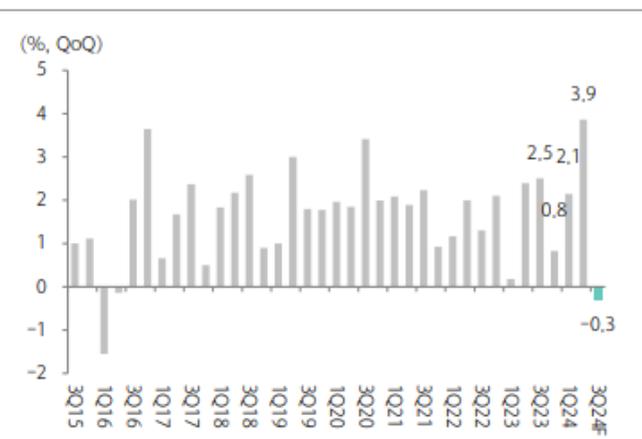
외국인 매수세 전환은 밸류업 공시에 달려 있어. 의미있는 총주주환원율 상승 기대

신한지주가 밸류업 공시를 한 7월 26일 이후 외국인이 신한지주는 1,77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동기간 KB금융에 대해서는 1,200억원을 순매도, 하나금융도 1,900억원을 순매도중. 결국 외국인 매수세 전환은 밸류업 공시에 달려 있다고 판단. 3분기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진행시 올해 총주주환원율은 KB금융과 유사한 38%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여기에 밸류업 공시를 통해 향후 의미 있는 총주주환원율 상승 발표를 기대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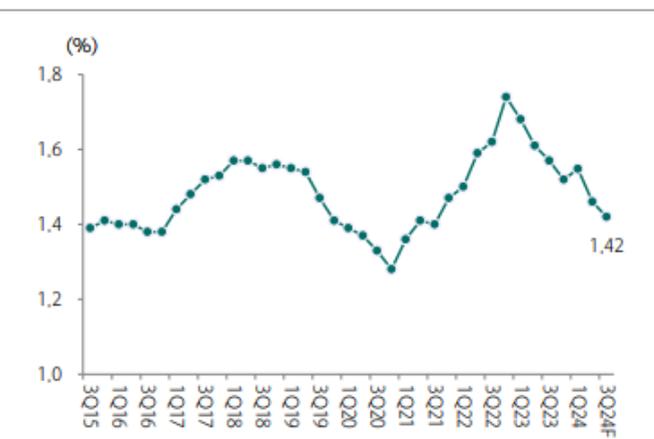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총영업이익	10,160	10,816	11,000	11,523
세전이익	4,943	4,681	5,109	5,392
지배순이익	3,571	3,422	3,768	4,019
EPS	12,067	11,704	13,179	14,058
(증감율)	2.7	-3.0	12.6	6.7
수정BPS	123,609	135,138	150,343	164,401
DPS	3,350	3,400	3,550	3,850
PER	3.5	3.7	4.6	4.3
PBR	0.34	0.32	0.41	0.37
ROE	10.1	9.0	9.2	9.0
ROA	0.7	0.6	0.6	0.6
배당수익률	8.0	7.8	5.8	6.3

도표 2. 하나은행 대출성장을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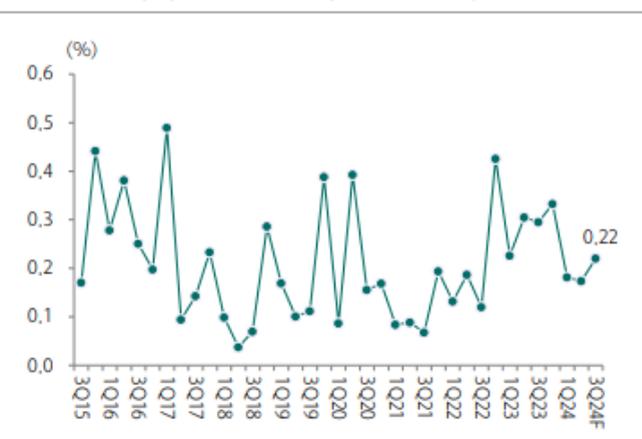
주: 전분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하나증권

도표 3. 하나은행 NIM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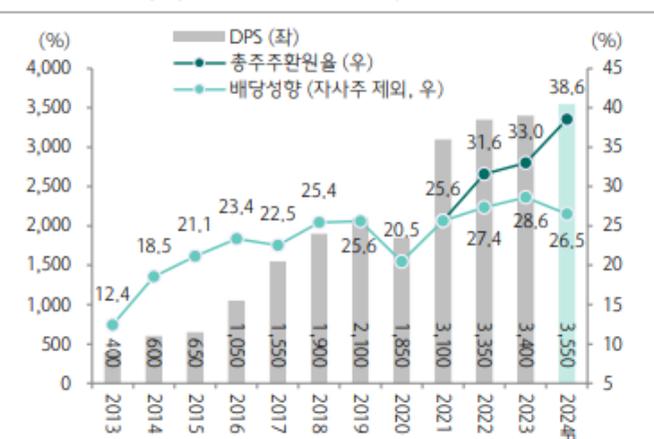
주: 분기 NIM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4. 하나금융 총자산대비 대손비용률 추이 및 전망



주: 총자산대비, 분기 기준, 분기 연율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5. 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 추이 및 전망



주: 2024F 총주주환원율은 4,0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소각 가정
자료: 하나증권



선익시스템

OLED 증착장비의 게임 체인저

[출처] 현대차증권 광민정 애널리스트

투자포인트 및 실적 전망

동사의 주요 투자포인트로는 1)기존 삼성디스플레이, BOE 1차 투자에 이어, 향후 비전옥스, CSOT 등으로 이어지는 8.6 OLED 투자 및 추후 이어질 BOE의 2차 수주 등에 대한 동사의 증착장비 수주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고, 2)최근 애플 비전 프로 출시 이후 OLEDoS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혼합현실(MR) 기기에 OLEDoS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관련 시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있음. 그에 따라 OLEDoS 용 증착장비에서는 선두 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 기대

2Q25부터 BOE향 8.6G 증착장비가 반입되어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실적은 매출액 3,358억원(+153.9% yoy), 영업이익 560억원(+265.2%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주요 이슈

DSCC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OLED 분야 투자는 14% 증가한 440억달러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및 기타 시장에서 OLED 보급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OLED 설비 투자 증가는 6G 모바일 라인 3개가 투자와 8.6G IT OLED 라인 증설 투자에 기인하며, 중국이 전체의 85%에 달하는 630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됨

OLED 증착장비는 크게 유기물 박막을 입히는 증착부와 기판을 들고 옮기는 물류 이송부로 나뉨. 동사는 이 둘을 턴키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중국 디스플레이향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삼성디스플레이, BOE 1차 투자에 이어, 향후 비전옥스, CSOT 등으로 이어지는 8.6 OLED 투자와 추후 이어질 BOE의 2차 수주 등에 대한 동사의 증착장비 수주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음

OLEDoS 시장에서는 동사가 양산 장비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선두적인 입지를 구축, 중국의 트리쑹, 에버비비드, BCDtek, 시드텍, 루미코어 등이 OLEDoS 양산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동사의 증착 장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꾸준할 것으로 기대

주가전망 및 Valuation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4,000원 제시. 목표주가는 BOE향 매출이 본격화되는 2025년~2026년 평균 EPS 4,241원에 Historical P/E 18x를 15% 할인한 15x를 적용

기존 OLED 증착장비 시장에서 캐논 도키가 독점하던 중 동사가 진입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OLEDoS 증착장비에서는 동사만이 글로벌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

요약 실적 및 Valuation

구분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BITDA (십억원)	EPS (원)	증감율 (%)	P/E (배)	P/B (배)	EV/EBITDA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74	4	-3	8	-351	적지	NA	2.6	24.7	NA	0.0
2023	62	-4	-9	0	-987	적지	NA	3.9	1,006.5	NA	0.0
2024F	132	15	-3	20	-299	적지	NA	7.1	26.9	NA	0.0
2025F	336	56	29	60	3,075	흑전	17.6	5.1	9.1	33.7	0.0
2026F	532	96	51	99	5,406	75.8	10.0	3.4	5.4	40.5	0.0

* K-IFRS 연결 기준

<그림1> BOE 8.6G B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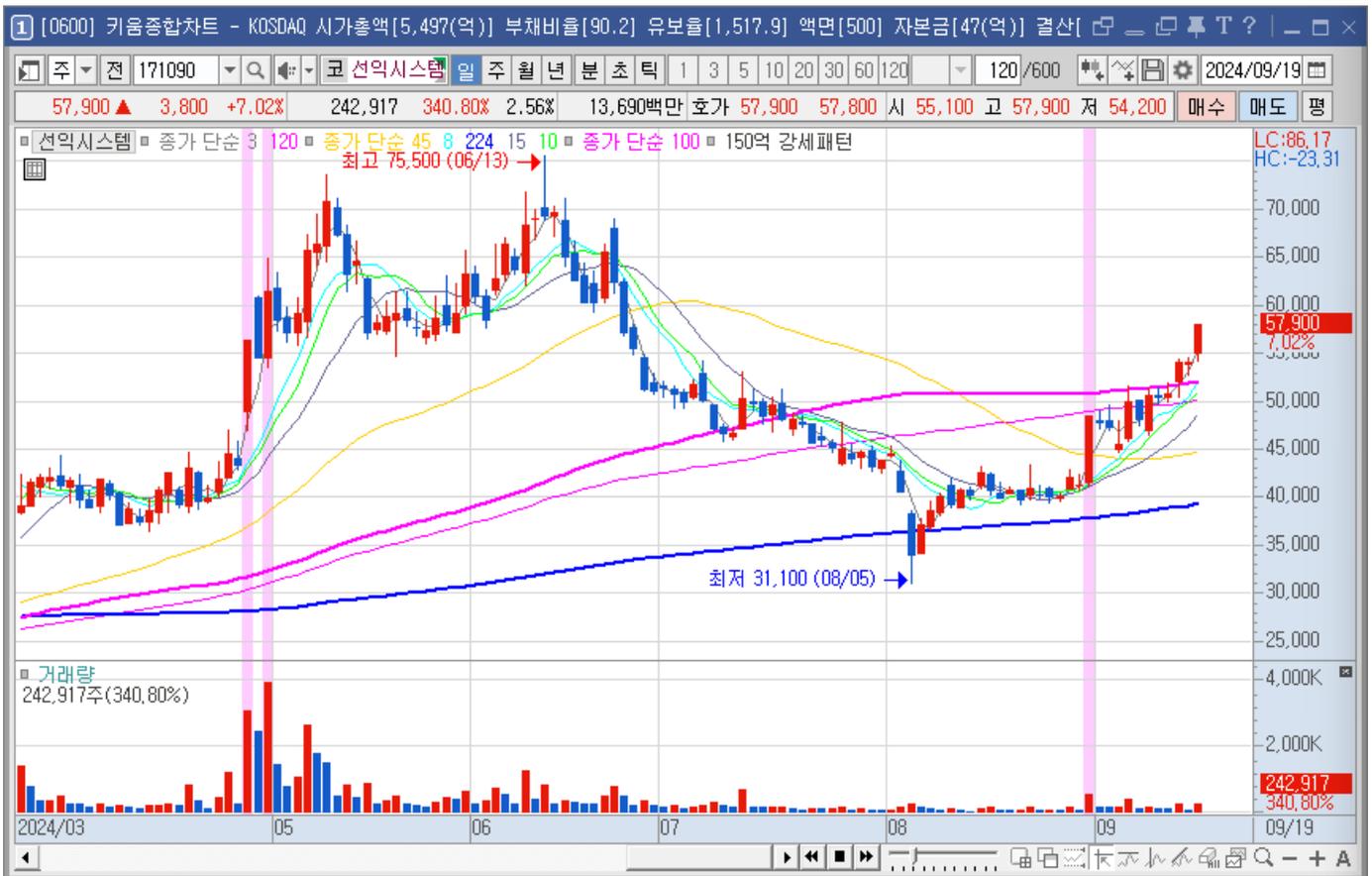


자료 : China Morning Post, 현대차증권

<그림2> OLEDoS



자료 : 씨아, 현대차증권



씨에스윈드

미국향 타워 공급 가격도 인상

[출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판가를 인상한데 이어 2025년 미국향 타워 판가(가공비)도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

고객사의 2025년 미국 타워 수요 물량 증가가 크고 터빈 수주 가격도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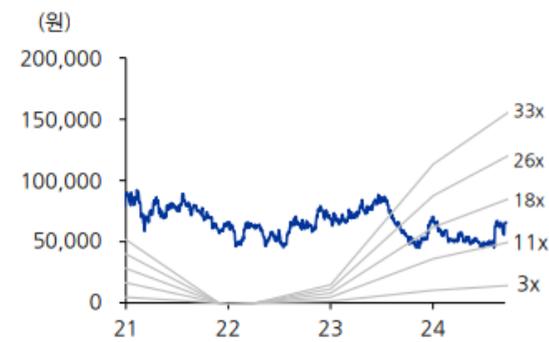
판가 인상 폭 감안하면 증설에 따른 비용 상승 반영해도 미국 법인 영업이익률(AMPC 제외) 상향 예상
 2025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과 미국 타워의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 각 60%, 80% 이상으로 중요도 높아
 내년에는 해상풍력 타워 신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베트남과 포르투갈 공장의 이익률 개선도 기대
 금리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미국과 유럽의 합산 풍력 설치 증가율 올해 6%에서 2025년 42% 증가 예상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만원 유지. 해외 비교업체들 대비 2025년 실적 기준 PER 할인폭 약 60%에 달해

12월 결산(십억원)	2023A	2024E	2025E	2026E
매출액	1,520.2	3,080.0	3,615.4	4,149.0
영업이익	104.7	272.8	331.7	393.0
세전손익	23.9	192.9	277.7	341.0
당기순이익	18.9	157.1	218.6	268.6
EPS(원)	471	3,725	5,184	6,369
증감률(%)	942.0	690.5	39.1	22.9
PER(배)	149.0	17.6	12.7	10.3
ROE(%)	2.2	16.4	19.6	20.1
PBR(배)	3.3	2.7	2.3	1.9
EV/EBITDA(배)	20.7	10.0	8.5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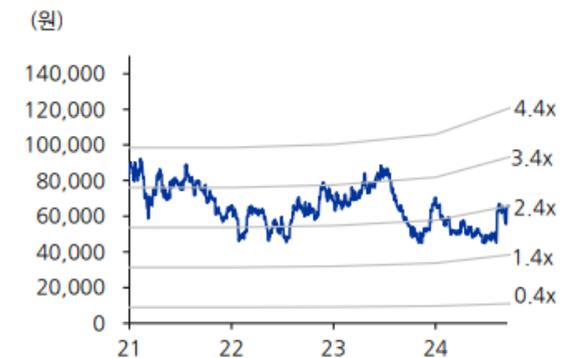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 씨에스윈드 12M Fwd P/E Band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씨에스윈드 12M Fwd P/B Band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효성티앤씨

눈높이 낮추지만 투자매력 여전

[출처] NH투자증권 최영광 애널리스트

바닥권까지 하락한 업황 지표, 밸류에이션도 바닥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는 420,000원으로 기존 대비 14% 하향. 밸류에이션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변경한 가운데 스판덱스 가격 약세 반영해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5% 하향
스판덱스 가격 약세는 원재료(BDO) 가격 하락 및 중국의 저가 제품 공급 확대 영향. 9월 6일 톤당 BDO 가격은 생산원가(1,200~1,500달러)를 하회하는 1,055달러까지 하락. 스판덱스 가격(25,300위안/톤)은 2분기 평균치 대비 약 7% 하락. 중국 스판덱스 재고일수는 61일까지 상승. 메이저 업체들의 재고일수는 30일 수준에 불과하나 중소기업체들의 재고일수가 70~80일로 크게 증가. 중소기업체들은 낮은 제품 경쟁력 및 점유율 하락 만회를 위해 저가 제품 공급 확대 중
실적 눈높이 하향하나 개선 방향성 유효. 바닥권 도달한 업황 지표(재고일수 역사적 고점, 스판덱스와 원재료 가격 역사적 저점) 및 긍정적 전방 지표(원단 재고 저점, 가동률 개선세), 밸류에이션 저점('25F PBR 0.8배) 등 투자매력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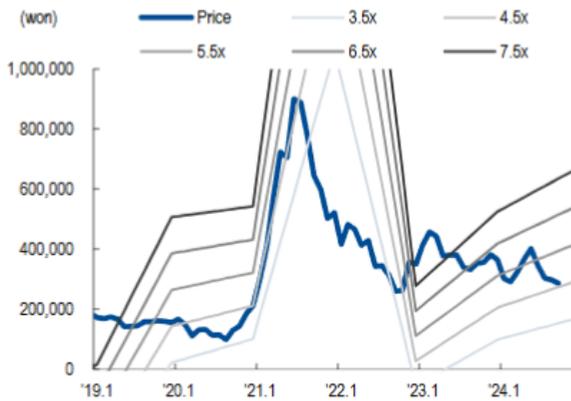
3Q24 Preview: 컨센서스 하회 전망

스판덱스 가격 및 스프레드 하락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하회하는 624억원(-24.0% q-q, 영업이익률 3.4%) 기록 전망. 3분기 스판덱스 판매량은 전분기와 동일한 견조한 수준. 다만, 브랜드 업체들의 오더 증가, 원단 업체들의 재고비축 등 기대했던 추가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 4분기에는 8월 말 급락한 BDO 가격이 원가로 인식되는 등 영업이익 반등 전망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7,527	7,591	7,634	7,868
증감률	-15.3	0.8	0.6	3.1
영업이익	213	291	346	366
증감률	72.7	36.3	19.1	5.6
영업이익률	2.8	3.8	4.5	4.7
(지배지분)순이익	93	125	171	191
EPS	21,535	28,904	39,420	44,209
증감률	704.0	34.2	36.4	12.1
PER	16.9	9.9	7.2	6.4
PBR	1.2	0.9	0.8	0.8
EV/EBITDA	6.6	5.0	4.5	4.3
ROE	7.5	9.5	12.0	12.3
부채비율	159.5	155.9	142.6	129.9
순차입금	1,190	1,152	1,102	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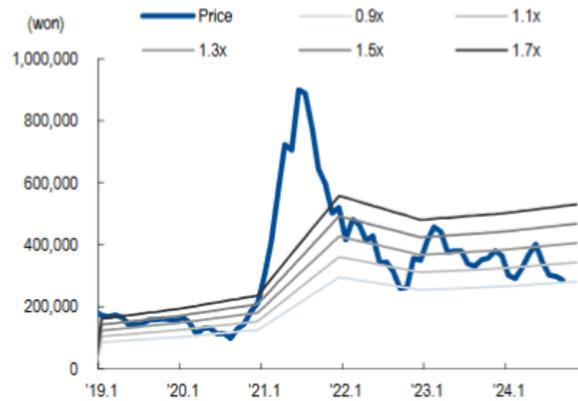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효성티앤씨 EV/EBITDA Band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2. 효성티앤씨 PBR Band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솔루엠

도약을 준비 중

[출처]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24년, ESL 부문 부진의 이유

동사는 2분기 매출액 3,939억원(YoY -25%), 영업이익 206억원(YoY -53%)을 기록했다.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부진한 이유는 ESL 판매 부진의 영향이다. ESL이 포함된 ICT 부문 상반기 매출액은 2,093억원으로 5,622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했다.

상반기 대비 반등이 예상되는 하반기 전망을 포함한 ICT 부문 연간 추정치도 4,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원인은 대형 리테일 향 수주 및 매출 인식의 지연이다. 23년까지 동사 ESL 부문은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와 더불어 주요 리테일 고객의 대형 수주가 더해짐에 따라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다. 다만, 24년 예상된 대형 수주가 제품 스펙의 변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주력인 3컬러 제품 대신 4컬러 제품으로의 스펙 변경과 이로 인한 설계 변경 및 품질 안정화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즉, 24년 ESL 부문 부진의 이유가 시장우려와 달리 ESL 시장의 성장 둔화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자부품 부문의 경우 견조한 실적을 전망한다. TV 출하량 감소에도 적용 제품 다변화 및 고객사 확대 등으로 인한 영향이다. 이에 24년 실적은 매출액 1조 6,265억원(YoY -17%), 영업이익 895억원(YoY -42%)을 전망한다.

25년, 다시 한번 도약

25년 동사의 실적은 ESL 부문의 반등과 함께 재차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동사 ESL 부문 수주 잔고는 상반기말 기준 1.9조원으로 23년 연말 기준 1.65조원 대비 높아졌다. 현재 수주 잔고만으로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실적이 가능하며, 지연된 대형 수주 건들의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SL 부문 성장 가시성은 높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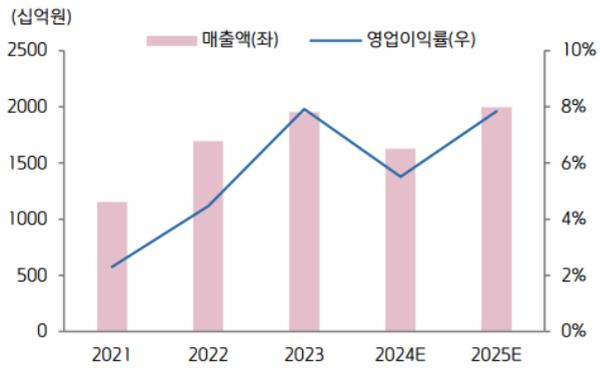
이에 동사의 25년 실적은 매출액 1조 9,957억원(YoY 23%), 영업이익 1,565억원(YoY 75%)을 전망한다. 올해 동사 주가는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약세를 이어왔다. 하반기 점진적 실적 개선과 추가적인 ESL 수주 모멘텀과 함께 동사의 주가도 우상향을 전망한다. 올해 실적 전망치 하향에 따라 목표주가를 34,000원으로 하향하나,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694.5	1,951.1	1,626.5	1,995.7
영업이익	75.6	154.5	89.5	156.5
EBITDA	112.6	193.1	125.0	193.4
세전이익	50.0	142.9	87.8	156.0
순이익	45.4	119.4	73.3	130.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47.3	120.4	73.9	131.4
EPS(원)	946	2,407	1,478	2,628
증감률(%YoY)	246.9	154.4	-38.6	77.8
PER(배)	18.4	11.3	13.5	7.6
PBR(배)	2.99	3.41	2.16	1.71
EV/EBITDA(배)	10.0	7.6	8.0	4.8
영업이익률(%)	4.5	7.9	5.5	7.8
ROE(%)	16.9	34.8	17.1	25.2
순차입금비율(%)	87.1	24.0	1.3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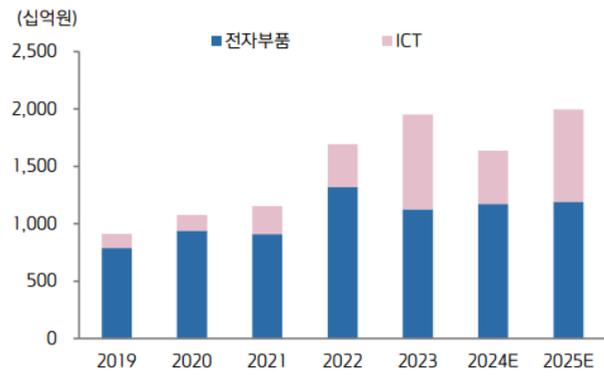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솔루엠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솔루엠, 키움증권

솔루엠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솔루엠, 키움증권

